

## 사랑의 찬가

..... 윤평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강렬한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의 찬가에 폭 빠져 한참을 듣고 또 듣다

이 곡에 나오는 연인은 당신이 되곤 합니다.

가끔은 찬송가로 부르는 사랑보다 연인에게 부르는 노래가 더 강렬하여 질투가 납니다.

나도 이런 사랑의 찬가를 당신께 부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항상 이렇게 강렬하진 않지만 항상 그 감정에 머물진 않지만  
사랑을 떠올릴 때 당신은 항상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당신을 이리도 사랑하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인을 향한 사랑엔 그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를 향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감정이 그러했기에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보이지 않기에 손에 잡히지 않기에

그렇지만 내 마음에 가득하기에

그 이유가 뭘까 곰곰히 생각해 보곤 합니다.

내가 당신과 사랑에 빠진 이유는

당신의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욕심마저 지워버릴 연인의 사랑을 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던져 버리고요마는 질투의 사랑에 살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끝내 자신을 모두 비우는 엄마의 사랑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겨버리는 신비한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을 난 알아버렸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바로 날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정작 내가 부르고픈 사랑의 찬가를 내게 불러준 건 당신이었습니다.

영원히 난 사랑에 빠졌습니다.

....